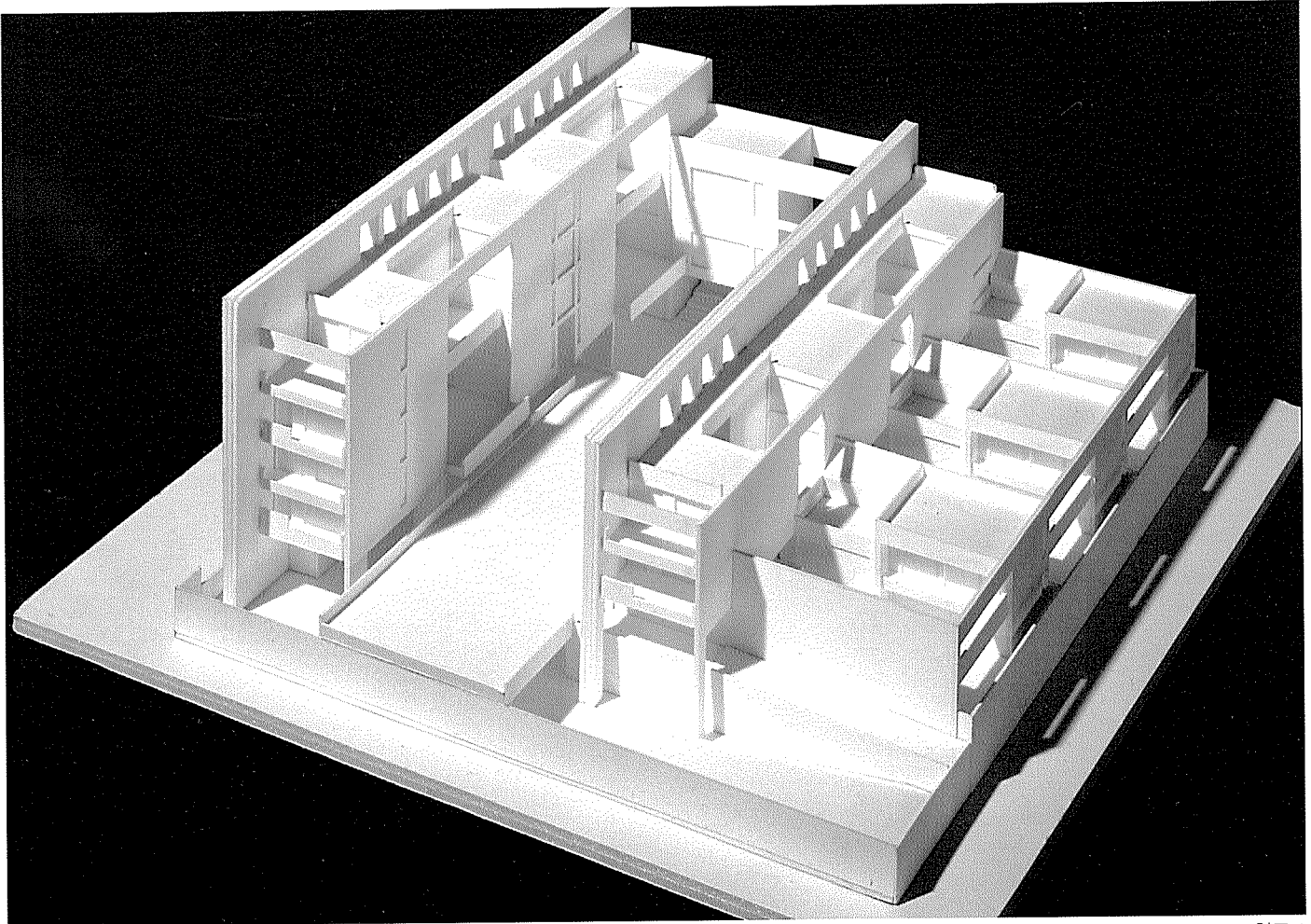


# 마당깊은 집

A Housing with Deep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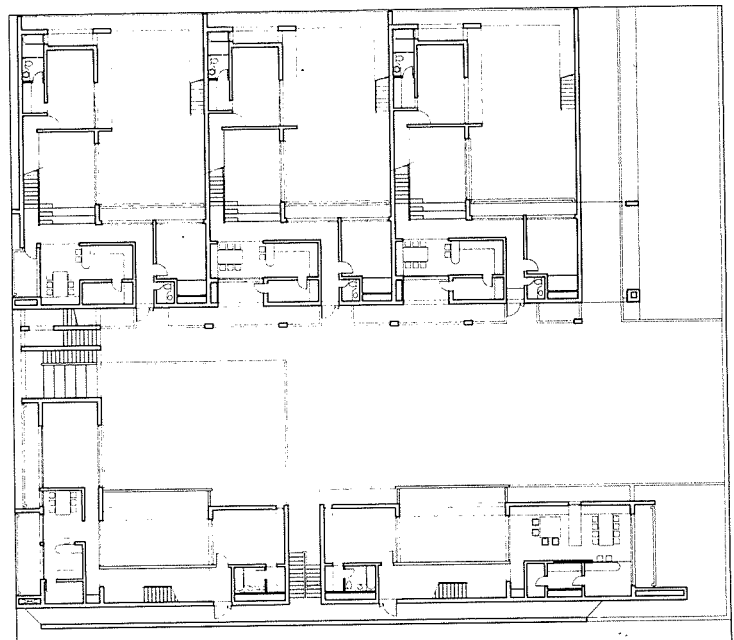
閔賢植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제  
Designed by Min Hyun-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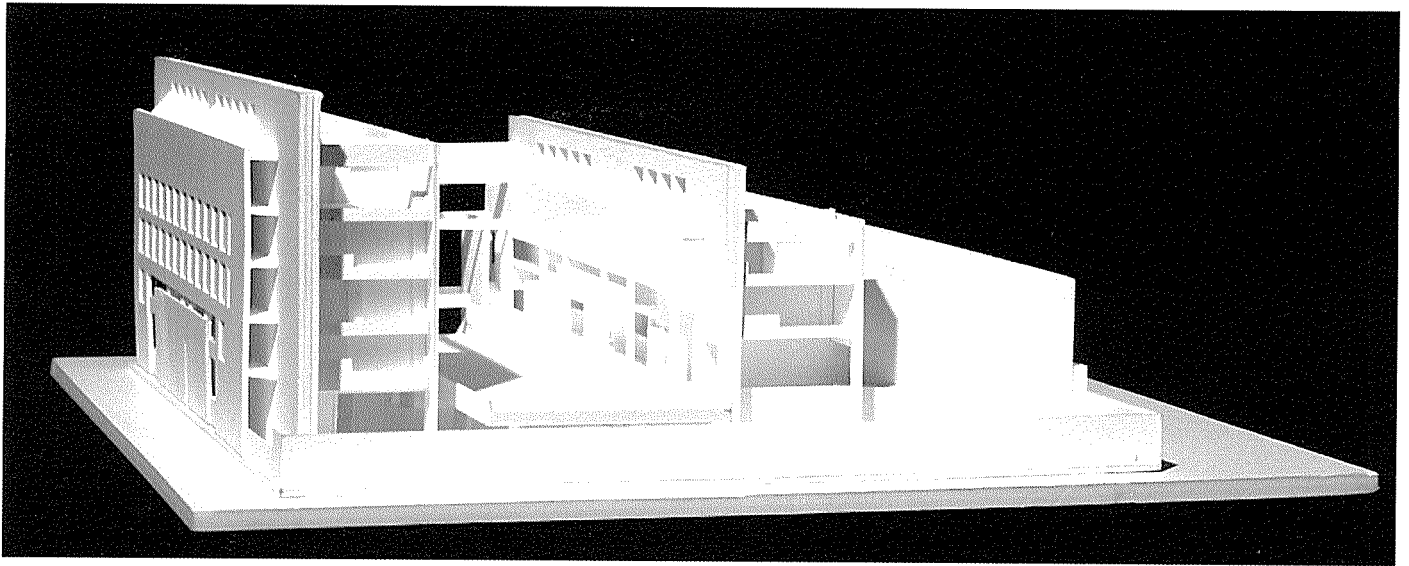
모형도 1

위치 / 분당 특별설계구역(C11-4-2)  
 대지면적 / 2,434.00 m<sup>2</sup>  
 건축면적 / 1,080.06 m<sup>2</sup>  
 연면적 / 2,669.08 m<sup>2</sup>  
 건폐율 / 44.37%  
 용적률 / 88.51%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리멘조  
 외장 / 외벽 : 철근콘크리트 / 드라이비트  
 지붕 : 아스팔트 방수 위 ①보호M+공자갈깔기 ②목재후로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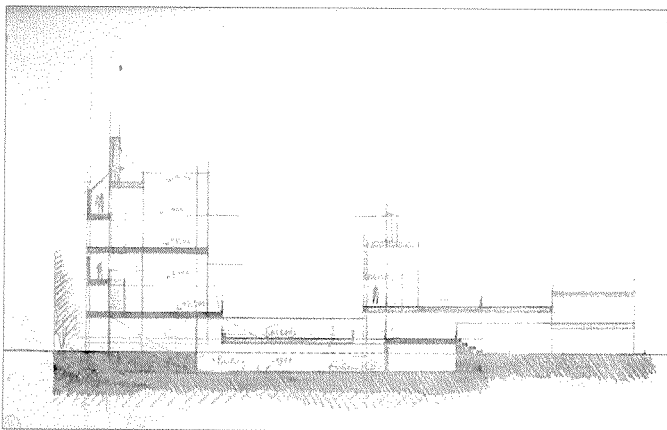
Location / Special Design Zone, Pundang-shi  
 Site Area / 2,434.00 m<sup>2</sup>  
 Bldg. Area / 1,080.06 m<sup>2</sup>  
 Gross Floor Area / 2,669.08 m<sup>2</sup>  
 Bldg. Coverage Ratio / 44.37%  
 Gross Floor Ratio / 88.51%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4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d Rigid Frame  
 Exterior Finish / Wall - Reinforced omcrete, Drybit Roof - Asphalt Waterpro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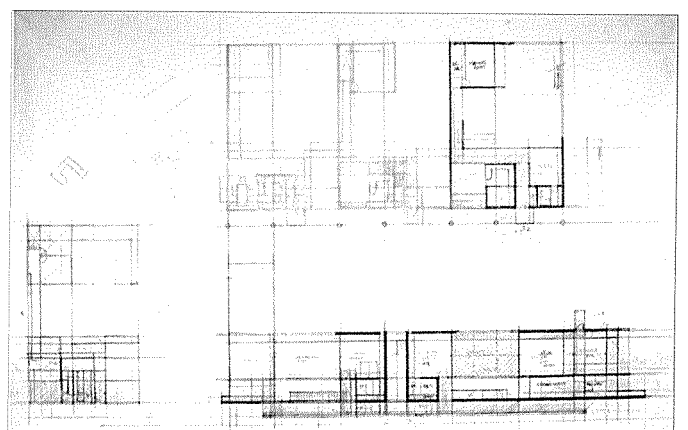
0 3 6 12M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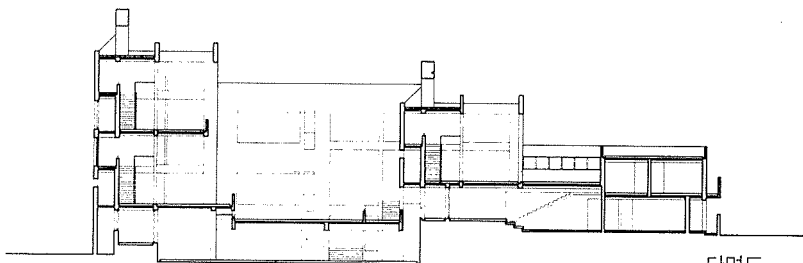
모형도 2



단면스케치



평면스케치



단면도

주거생활이 벌어지는 각각 장소들의 기능은 엄격히 하나로 정의될 필연은 없다. 그리고 그것의 공간적 느낌 또는 감동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 만큼이나 다양하며 시시 때때로 변화할 뿐 아니라, 극적인 강렬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섬세하고 범상한 기쁨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사무공간처럼 엄격한 틀속에 규율화되어 있지도 않고 휴양장소같이 방만하지도 않으며 종교적 공간처럼 한곳으로 밀어부치는 일의적(一意的) 감동만을 갖지도 않는다. 주거생활이 오랜 시간을 거치며 형성되어온 격(格)에 뿌리를 둔 자유이듯이 그것을 담는 주거생활의 장소, 공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여기 마당깊은집에서 의도하는 바는 '비움'의 건축화이다. 이 집을 구성하는 모든 방과 장소들 뿐 아니라 그것들을 구축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건축적 요소들이 그러하기를 바

란다. 여기서 말하는 '비어있음'은 상실, 외로움의 골이 깊은 허무, 배고픔의 고통이 아니라 고향, 명료함, 투명성 등의 의미로 쓰고 싶다. '비어있음'은 소리없이 반향하며, 충만되고자 하는 잠재력으로 완성을 위해 열려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주거에서의 하나의 공간, 하나의 장소, 또는 하나의 형태적 대상 등이 비어있음으로 해서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내·외적 조건 아래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의 고유한 기능과 느낌으로 매순간 자율적으로 창출되도록 함이다.

그중에서 특히 벽, 길, 마당을 주목한다. 그것들을 하나로 고정된 의미가 있는 형태로 만든다기 보다 이들이 빛과 바람과 그리고 사람과 조우하면서 엮어내는 순간순간의 상황과 느낌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벽'은 가능한 서쪽 태양빛에 맞서게 한다. 기능을 구획하거나 공간감을 형성하는 실제의 기능을 넘어서 매일매일 다른 황혼빛을 더욱 극명

히 느끼도록 한다. 따라서 이 벽들은 극히 절제된 형상을 가지게 하여 하나의 오브제이지만 형태의 디자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벽에 부딪치는 빛의 디자인이다.

이 집의 개개 공간을 관통하여 그것들을 서로 이어주는 '길'은 가능한 길게 물의 흐름과도 같이 조직한다.

시가 언어들, 연계이고 음악이 음표들의 이음이듯이 건축은 각각 다른 질(質)을 가진 공간들이 길을 따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진 것이다. 길을 걸으며 밝고 어두운, 열리고 닫힌 공간을 만나고 그 여정에서 이웃과 가족을 만나며 때때로 홀로 빛과 바람, 하늘을 만난다.

각각 조금씩 다른 공간적 성격을 가진 '마당'은 비어 있다. 조용하고 명료하여 투명한 깊은 마당은 쏟아지는 햇빛, 지나가는 바람이 적절한 스케일로 조율되어 팽팽한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

그곳에 빛과 바람이 머물고 있음으로 해서 또한 다른 공간에 빛과 바람, 생명력을 줄 수 있게 된다.

주택, 특히 적층으로 쌓일 수 밖에 없는 공동주거에서도, 이러한 적절한 위계를 가진 벽, 길, 마당들을 마련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사는 그리고 홀로 사색하는 의미를, 잃어가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려 함이다.